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8(1): 21~37, 2007

원주시 성인남녀의 지역복지서비스 필요도 및 관련요인

강 유 진 · 신 철 오*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

A Study on Welfare Service Needs and Related Factors in Wonju City

Kang, Yoo Jin · Shin, Chul Oh*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Gunpo, Korea
Korea Maritime Institute,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explain the degree of need for community welfare services designed for the residents of Wonju City. For this purpose, we identify five categories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 employment and income supporting programs, residence supporting programs, public health programs, family programs, and welfare facilities for enhancing quality of life. The data come from 234 adults living in Wonju city.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we find that participants are well aware of needs for community welfare service, and that the degree of need for public health services is the highest among the five types of welfare programs. Secondly, we find differential effects of the individual factors such as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and the community factors such as quality of environmental facilities, which make daily lives convenient, and residential region. Particularly, environmental facilities appear to have a strong association with high needs for the majority of welfare services. Finally,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still observ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sponsibility of Wonju city for providing diverse and adequate welfare services should be emphasized. Priorities for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 empirical data a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policies.

Key words: welfare service needs, welfare services, community welfare

I. 서론

최근 들어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의 수립과 이것의 효과적 제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서 파생된 사회문제들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단위의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전문적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이인희 2004). 지역사회복지는 복지욕구를 지역사회 주

접수일: 2006년 12월 30일 채택일: 2007년 2월 5일
Corresponding Author: Kang, Yoo Jin Tel: 82-31-450-5210 Fax: 82-2-6242-5163
E-mail: yoojin528@hansei.ac.kr

민의 생활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의 전달체계, 시설들을 재편한다는 점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의 욕구에 보다 융통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

우리 사회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점차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서비스 개발이 한층 강조되는 추세이다.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이 더욱 강화·확대되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을 단순히 관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공급자 및 생산자로서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김순양 1994). 따라서 지역사회가 지역 주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창출하는가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이 시점에,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강조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욕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즉, 사회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민의 욕구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원식·임성옥 2002). 다양하게 수집된 욕구 조사 자료들은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할 때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탐색하거나, 사회복지재원을 지원할 때, 혹은 기관 활동 홍보나 후원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서인해·공계순 2004).

그러나 이제까지 수행된 욕구조사활동이 양적인 측면에서 급증하는 반면, 정작 지역복지와 관련하여 지역단위에서 사회복지수준을 높이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기존의 사회복지욕구조사들을 살펴보면, 첫째, 전국 규모 혹은 농촌지역 등 보편적인 복지욕구조사(강세현 1999; 박경숙 2001; 이인재 1997; 한현수 2004)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지역성을 밝히고, 그 지역에 적합한 복지행정 자료로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채정숙 등 1996). 둘째, 노인, 저소득, 빈곤 여성 등 주로 요보호 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욕구 파악이 주를 이루었다(고정자·최은주 2001; 김미숙 등 2000; 김은정 & 진미정, 2004; 김정순 등 2003; 변화순 등 2001; 이현송 1999; 최원규 1997). 그러나 최근 복지실천의 개념이 요보호 대상을 넘어서 일반 개인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개념으로 확대됨을 감안한다면, 복지욕구의 파악이 보다 넓은 범위의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욕구조사 내용이 지역 차원의 조사와 기관 차원의 조사가 혼동되어 있다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서인해·공계순 2004; 신원식·임성옥 2002).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욕구 조사들의 대다수가 전체 지역사회 단위의 독특한 욕구표출을 검토하기 보다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혹은 센터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선호도를 수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조희금·채정숙, 2003). 이 때문에 지역욕구조사가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주민들의 지역복지서비스 욕구와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를 관련시켜서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 지역복지욕구 혹은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자체만을 기술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추상적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생활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의 필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마다의 독특성을 살려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심층적인 욕구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동일한 지역사회 문화권에서 지역주민들이 표현하는 욕구의 경향성을 살피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복지서비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관련요인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지역 단위의

복지행정의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농 통합도시인 원주시를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지역인 원주시는 1995년 강원도의 원주군과 원주시가 통합한 대표적인 도·농 통합도시이다. 원주시의 면적은 강원도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인구는 약 28만 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농 통합이후 통합시 전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강원도 내에서 최대의 인구규모를 자랑하며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지만, 군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 산업구조 역시 농·림·어업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기타 사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등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김주원 1998; 원주통계연보 2004).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대표적인 도 · 농 복합도시인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가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면한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지역복지서비스 필요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복지욕구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 주거, 보건의료, 가족관계, 지역사회 환경 등 지역주민들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 예상하고자 한다. 둘째, 원주시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와 연결시켜 살펴볼 것이다. 지역복지 영역을 소득, 주거, 보건, 가족생활, 복지환경 영역 등으로 나누어 볼 때, 각 영역의 필요정도가 어떠하며, 이 중에서 어떤 복지서비스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원주시 지역복지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지역복지서비스 필요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필요도의 경향성 및 원주시 지역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지역복지의 개념 및 내용

최근 사회복지의 영역이 요보호계층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획일적 복지체계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 내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분권적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이다.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 내려진다. 이병렬(1998)은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제도를 개선 혹은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계획을 추진 및 실행하는 모든 전문적 노력을 아우른다고 정의한다. 이인희(2004)는 지역사회복지는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족 제도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려는 일련의 사회적 노력으로서 지역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 나름의 독특한 지역적 토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복지시스템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의 영역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이창희 · 강영실 2006). 첫째, 지역 내 요보호 계층을 위한 보호적, 사후적 복지서비스 및 복지환경 정비를 들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시설복지서비스 등 요보호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사회복지의 중요한 흐름이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변화됨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박광덕 2002; 이병렬 1998; 이인희 2004).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지시설을 갖추기보다 각자 일상생활에 익숙한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까지 형성해온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에 필수적인 도움과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수립이 훨씬 효과적이며 비용절감의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예방적 복지증진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복지대상자를 요보호계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주민을 포함한 전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것은 일반주민이 요보호자가 되지 않도록 생활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기 발견하여 보건의료, 완전고용, 교육, 주택 등 포괄적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지역조직화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조직화 활동은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복지와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들에 대해 융통적이고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사적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근 사회복지 욕구가 특수한 요보호 대상을 벗어나 일반인들에게까지 빈번히 표출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이 보다 광범위해지는 경향이다. 사회복지가 특수한 계층을 위한 사후 관리적 개념이 아닌, 보다 포괄적 대상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역복지의 내용 중 일반 주민을 위한 '예방적 복지 증진' 노력이 한층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욕구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 설정 및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이 커졌다.

결국, 본 연구는 지역복지를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전문적 노력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지역복지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보건, 주거, 가족 등 일상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복지정책 영역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지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보건, 주거, 가족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경험하는 생활의 어려움 및 복지서비스 필요정도와 이에 대한 관련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일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복지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안할 것이다.

2. 지역복지서비스 필요도 관련 요인

복지욕구의 파악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지역복지욕구는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결핍인 동시에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동질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구성원들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표현하는 또 다른 지표가 된다. 이러한 욕구의 해결은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단위의 욕구파악이 지역복지 수행에 중요해진 것이다(신원식 · 임성옥 2002).

따라서 복지욕구조사는 단순히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서비스 욕구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심층적

으로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거나,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에 연결시키는 과정으로까지 연결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서인해 · 공계순 2004).

한편, 복지서비스 욕구 및 이용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여성, 빈곤, 노인 등 요보호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왜냐하면 복지서비스 제공이 선별적 기준으로 특정 인구에 집중되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이재모 · 이신영 2006). 또한 지역복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특정 지역 주민들의 생활실태 파악과 지역복지욕구 현황 등 주로 실태를 파악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강세현 1999; 박경숙 2001; 이인재 1998). 따라서 포괄적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복지욕구와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론적 분석틀로 사용해 온 Anderson과 Newman(1973)의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모델은 원래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이 후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확장 · 적용되어져 왔다(Calsyn & Winter 1999). 또한 복지서비스 이용행동 뿐 아니라 이용의향 및 복지서비스 필요도 연구에도 활발히 사용되었다(윤현숙 2001; 이가옥 · 이미진 2001; 이재모 · 이신영 2006).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원주시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필요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데 Anderson과 Newman(1973)의 모델을 적용할 것이다.

Anderson과 Newman(1973)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행동 혹은 이용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소인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성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 factors)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박경숙 2003; 송다영 2003; 윤현숙 2001).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인요인(predisposing factors)이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신념체계, 태도 등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개인적 성향을 말한다. 이것은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및 건강과 관련된 태도 등을 포함한다. 둘째, 가능성요인(enabling factors)은 서비스를 이용받기 위한 수단과 관련이 있다. 서비스 사용을 수월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득수준,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사회적 지지 등 요인이 포함된다. 셋째, 욕구요인(need factors)은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건강상태, 일상생활능력, 질병상태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복지서비스 필요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Anderson과 Newman(1978)이 제시한 모델을 토대로 하여 지역복지욕구 관련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지역주민들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Anderson과 Newman(1978)이 제안한 소인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 등이 지역의 취업 및 소득정책, 주거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복지환경정책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개인의 소인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포함시키며, 가능성요인으로는 가족 수와 소득수준을, 욕구요인으로는 경제적, 건강, 주거, 가족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설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개인적 특성 요인이외에도 지역복지서비스 필요도에 관련되는 변수로서 지역주민들의 근접환경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 환경의 쾌적성, 복지자원, 생활인프라 등 지역주민들이 근접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충분한 복지여건을 제공받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개인적인 특성 요인들이 복지수요자의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시설, 생활 편의시설 등 객관적인 지역적 복지여건에 관한 정보는 지역 환경의 복지공급의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필요정도와 관련이 있는 지역적 여건이 어떠한지 밝힐

Table 1. Sel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haracteristic	N(%)
Gender	
Male	67(28.6)
Female	167(71.4)
Total	234(100)
Type of Employment	
Professional	19(14.3)
Office worker	29(21.8)
Salesperson	52(39.1)
Laborer	11(8.3)
Farmer and the others	25(16.6)
Total	136(100)
Number of children	
None	9(3.8)
1	33(14.1)
2	166(70.9)
3	24(10.3)
4 or over	2(.8)
Total	234(100)
Most expensive item in family budget	
Food	23(9.8)
Residence	19(8.1)
Medical treatment	2(.9)
Child education	148(63.2)
Public charges	37(15.8)
The others	5(2.2)
Total	234(100)
Age	
20-39	91(38.9)
40-49	119(50.9)
50 or over	24(10.3)
Total	234(100)
Income	
under ₩2,000,000	44(18.8)
₩2,000,000-₩2,990,000	65(27.8)
₩3,000,000-₩3,990,000	32(13.7)
₩4,000,000-₩4,990,000	17(7.3)
₩5,000,000 or more	19(8.1)
Total	177(100)
Education	
Primary school	6(2.6)
Middle school	9(3.8)
High school	124(53.0)
University	88(37.6)
Graduate school	7(3.0)
Total	234(100)
Type of family	
Parents	11(4.7)
Parents+Child	198(84.6)
Grandparents+ Parents+Child	20(8.5)
The others	5(2.1)
Total	234(100)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농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욕구 및 복지서비스 환경의 격차가 상이함이 보고된 바 있다(박경숙 2001; 이정화 · 송미영 2004). 마찬가지로 도 · 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견지한다면,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도 거주 지역이 도시이냐 농촌이냐에 따라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여건이라든가 서비스 필요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파악한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인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 등 개인특성관련 변수와 더불어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시킬 것이다. 즉, 원주시 복지 여건의 결핍상태를 진단하는 복지환경 요인 및 도시 · 농촌 등 거주 지역 유형 등을 지역 복지 공급 상태를 반영하는 지역적 요인으로서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06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60대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표집은 원주시 인구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고자 하였다. 설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하여 무작위 추출된 총 250가구를 대상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미혼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기혼의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지 총23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들이 설문지의 문항을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30부 정도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남성이 비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

다(남자는 28.6%, 여성은 71.4%). 연령대의 경우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취업직종의 경우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사무직으로 구성되었다. 소득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가족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다수(70.9%)가 2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가족유형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84.6%). 가족의 지출항목 중에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자녀교육비(6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를 취업 및 소득지원, 주거, 보건, 가족, 복지환경 등 다섯 가지 일상생활 환경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각 영역별 지역복지욕구척도는 기존의 지역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각 영역별로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는 수원시, 부천시, 의왕시 지역복지계획 설문자료를 참고로 원주시 지역복지서비스 욕구 실태 문항을 작성하였다.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를 묻는 문항은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욕구를 묻는 것이 아닌 특별히 원주시에 필요한 지역복지서비스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원주시에서 아래의 문항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명히 밝히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지원, 주거, 보건, 가족, 복지환경 등 지역복지 각 하위 영역별로 구체적 복지서비스 문항들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원주시에서 이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혀 필요 없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필요하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프로그램들에 대한 필요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취업 및 소득복지 의 Cronbach α=.93, 주거복지 척도의 Cronbach α=.85이고, 보건복지 척도의 Cronbach α=.91, 가족복지 척도의 Cronbach α=.91이며, 지역환경복지 척도의 Cronbach α=.88이었다.

2) 독립변수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의 소인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성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 factors) 및 지역요인(environment factors) 관련 변수들이다.

소인요인(predisposing factors)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로 코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연속변수로써 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가능성요인(enabling factors)은 가족수와 월소득이 포함되었다. 욕구요인(need factors)은 취업 및 소득생활, 주거생활, 건강생활, 가족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을 묻는 여러 하위 문항들로써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기존의 지역복지실태조사를 참고하여 구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질문은 각 생활 영역별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1점, '매우 심각하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각 생활영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요인은 지역복지여건요인과 거주지역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지역복지여건이란 원주시 물리, 문화, 교육, 보건자원의 공급이 얼마나 충분하며 편리한지를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져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원주시 지역복지환경이 충분치 않음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요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이며, 도시지역이면 '1', 농촌지역이면 '0'으로 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의 어려움의 정도와 복지서비스 필요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을 분석하였다.

둘째, 취업 및 소득, 주거, 보건, 가족, 지역환경 영역에서 조사대상자들의 복지서비스 필요정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복지영역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소인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 지역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상생활 어려움 실태

개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어려움의 정도가 어떠한지 살피는 것은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적절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일상생활 영역을 취업·소득, 주거, 건강, 가족관계, 지역사회 복지여건 등으로 나누어 볼 때 각 영역 별로 지역주민들이 경험하는 생활문제의 어려움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첫째, 원주시 기혼남녀의 취업 및 소득생활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취업 및 소득문제로 인한 어려움 정도를 '매우 심각하다'를 5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취업 및 소득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의 전체 평균은 3.81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 평균이 척도 상 '보통이다'와 '조금 심각하다' 사이에서 '조금 심각하다'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들은 취업 및 소득과 관련하여 비교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 및 소득문제 영역 중 특히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별로 심각정도의 평균을 자세히 비교한 결과, 소득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심각하게 경험하는 취업 및 소득 관련 어려움은 '취업 기회의 부족'이었다. 이처럼 조사대상자들이 취업 및 소득 부분에 있어서 소득불만족과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결과는 지역주민의 취업기회제공 및 소득안정을 위한 지역정책의 욕구가 높을 것임을 암시한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주거생활에서의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주거문제 심각도의 평균은 3.02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은 주거문제를 보통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 항목은 주택관리로 인하여 드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주거생활에 있어서 주택의 관리와 유지에 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셋째, 건강생활 영역에서 원주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건강문제의 심각도의 전체 평균은 3.35로 원주시 주민들은 보통 이상의 비교적 심각한 보건 및 의료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영역의 각 하위 항목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의료비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심각하다고 나타난 항목은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지식 부족'이었다. 이처럼 앞의 주거 영역과 마찬가지로 건강생활 영역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이 가족생활 영역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가 어떠하며 어떤 영역의 가족문제가 가장 심각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족생활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다른 일상생활영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어려움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어려움의 심각정도의 전체 평균은 2.44로 척도 상 '심각하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생활 영역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원주시의 문화, 교육, 보건 등 지역의 복지환경 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알아 본 결과, 심각도 인식의 전체 평균이 3.71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 평균이 '조금 심각하다'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에 대해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의 복지 환경 여건 중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가장 높은지 알아본 결과, 문화적 여건에 대한 심각정도의 평균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원주시 내 문화 및 여가생활을 위한 마땅한 지역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증가하는 문화복지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원주시 기혼남녀들의 일상생활의 복지욕구를 취업 및 소득, 주거, 보건 및 의료, 가족생활, 지역 환경 등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로써 파악해 볼 때,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 등 경제적 측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일상생활 어려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취업기회의 부족, 소득불만족 등 직접적으로 표출될 뿐 아니라, 다른 가족생활의 영역인 주거, 건강생활, 가족관계 등에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주택관리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 의료비용의 문제, 자녀교육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 등이 그

Table 2. Degree of difficulties in daily lives

Area	Difficulties in daily lives	Mean (1-5)	S.D.
Employment & Income	lack of job opportunity	3.99	1.12
	lack of qualifications or skills for job	3.76	1.12
	dissatisfaction with workplace	3.67	1.06
	difficulties in conducting both housework and work	3.65	1.22
	dissatisfaction with income	4.00	1.04
	total	**3.81**	**0.87**
Residence	physical problems of a house	3.10	1.15
	expenses of looking after a house	3.35	1.08
	unstability of residence	2.63	1.15
	total	**3.02**	**0.92**
Health	health problems of family members	3.23	1.03
	economical problems of medical expenses	3.56	1.04
	caregiving problems	3.19	1.29
	lack of informations about diseases & health	3.40	1.06
	total	**3.35**	**0.85**
Family relationship	family violence	2.09	1.21
	communication problems among family members	2.26	1.25
	family conflicts	2.34	1.27
	caregiving burden	2.37	1.37
	child rearing burden	3.15	1.41
	total	**2.44**	**1.13**
Community welfare status	physical aspects	3.57	1.06
	cultural aspects	4.08	1.01
	educational aspects	3.86	1.05
	public health aspects	3.34	0.86
	total	**3.71**	**0.76**

예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주시민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원주시 지역의 문화, 교육, 보건 등 전반적인 복지환경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 여건에 대한 심각정도의 경우, 전체 일상생활 영역 중 가장 심각도가 큰 영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주시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복지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의 복지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조사대상자들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가족을 둘러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이에 대응한 적절한 복지여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

지역복지 영역을 취업 및 소득지원 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가족관계지원서비스, 복지환경 등 다섯 가지 복지영역으로 나누어 각 복지서비스영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필요욕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영역별 복지서비스 필요정도를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 '매우 필요하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측정하였을 때, 다섯 가지 복지서비스 영역 모두 평균이 3.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조사대상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복지자원을 제공받기를 비교적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하위 영역별 서비스 필요정도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지역복지서비스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복지서비스 우선순위는 보건복지서비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지역복지환경서비스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고용 및 소득관련 서비스이었으며, 그 다음이 주거복지서비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서비스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원주시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더불어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결핍정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 2002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 15세 이상 인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건강문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흥식 등 2002). 건강과 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은 최근 우리 사회의 성인남녀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조사대상자들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원주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질의 보건,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등에 걸쳐 복지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 복지인프라 조성에 대한 필요정도가 두 번째로 중요한 복지서비스 영역으로 나타난 것은, 원주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생활시설 인프라를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각 복지서비스 영역별로 구체적 서비스 항목들의 필요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및 소득복지서비스의 경우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항목의 필요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의무고용제 확대'의 필요정도가 높았다.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많아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앞의 Table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사대상자들의 가계지출항목 중 자녀의 교육비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과 연결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한 소득 지원을 위해서 고용 등 취업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주거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장 높은 필요정도를 보인 항목은 '주거관련 교양강좌'이었으며, 그 다

Table 3. Degree of needs for welfare services

Area	Type of welfare services	Mean (1-5)	S.D.
Employment & Income	job training	3.65	1.18
	counseling of job hunting	3.63	1.21
	help for independent business or side business	3.78	1.18
	loan facilitation for independent business or side business	3.77	1.21
	increase of compulsory employment	3.81	1.21
	loan facilitation for rehabilitation fund	3.60	1.27
	support for child education	3.98	1.21
	total	**3.75**	**1.02**
Residence	improvement services for residential environment	3.40	1.05
	temporary residential offer for street people	3.11	1.20
	service for moving	3.12	1.11
	loan to pay for the lease of a house	3.43	1.28
	increase of a public rental house	3.46	1.27
	general education program on residence	3.49	1.22
	legal education program on residence	3.36	1.21
	total	**3.34**	**0.86**
Public health	medical examination support	4.18	0.97
	guide for medical institutions	4.09	1.80
	free medical treatment	4.34	0.93
	extension of functions of a public health institution	4.30	0.94
	health education program	4.22	0.93
	increase of medical institutions for emergency	4.35	0.88
	total	**4.25**	**0.81**
Family relations	counseling service	2.93	1.24
	family therapy	3.11	1.35
	family education before marriage	3.08	1.40
	parent education program	3.61	1.29
	intimacy enhancing program among family members	3.56	1.30
	total	**3.26**	**1.13**
Community facilities	facilities for a civilized life	4.44	0.83
	sports facilities	4.33	0.91
	medical facilities	3.73	1.18
	department and stores	3.77	1.16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3.82	1.11
	public garden	4.50	0.76
	social welfare institutions	4.41	0.89
	total	**4.14**	**0.75**

음이 '임대주택 확대'이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주거와 관련한 유용한 재테크 및 세금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서비스의 경우, 모든 항목의 평균이 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 이상에 위치하였는데, 이것은 원주시가 보건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중 가장 높은 필요정도를 보인 복지서비스 항목은 '응급의료기능 강화'이었다.

가족복지를 위한 서비스 항목들에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인 가족복지서비스 항목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이었으며, 그 다음이 '가족간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이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역할을 도와주고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환경 필요욕구에서는 '공원 및 녹지 환경 조성',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의 항목들이 모두 평균 4.0이상의 높은 필요정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원주 시민들의 높은 문화·여가 욕구를 표출한 것으로, 지역 사회 환경 내에서 이러한 욕구에 걸 맞는 문화·여가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3.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지역복지 욕구와 관련이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심층적으로 살피기 위해 지역복지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 즉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복지환경 등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 각 영역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나,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는 .8을 넘지 않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에 따라 복지서비스 필요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첫째,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의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욕구요인과 지역요인이 있었다. 욕구요인으로는 취업 및 소득문제, 보건문제, 가족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요인은 도·농 거주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요인과 가능성요인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independent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1.00	-.239*	-.177*	.037	-.024	.114	-.025	.058	.033	-.059	.062
2	-.239*	1.00	-.144*	.113	.054	-.018	.029	.113	.052	.054	.083
3	-.177*	-.144*	1.00	-.044	-.083	.068	-.024	-.143	.038	.030	.069
4	.037	.113	-.044	1.00	.091	.098	.051	.029	.073	.094	-.075
5	-.024	.054	-.083	.091	1.00	-.043	.093	-.057	-.077	.078	.079
6	.114	-.018	.068	.098	-.043	1.00	.335***	.228***	.300***	.389**	-.057
7	-.025	.029	-.024	.051	.093	.335***	1.00	-.057	-.077	.427***	-.065
8	.058	.113	-.143	.029	-.057	.228***	-.057	1.00	.267***	.374***	-.105
9	.033	.052	.038	.073	-.077	.300***	-.077	.267***	1.00	.225***	.067
10	-.059	.054	.030	.094	.078	.389**	.427***	.374***	.225**	1.00	-.164*
11	.062	.083	.069	-.075	.079	-.057	-.065	-.105	.067	-.164*	1.00

1.sex 2.age 3.education 4.number of family members 5.income 6.employment & income 7.residence 8.health 9.family relationship 10.community welfare status 11.region

*p<.05 **p<.01 ***p<.001

은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문제 중 취업 및 소득 관련 어려움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취업 및 소득복지서비스제공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문제 역시 의료비 지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 욕구와 관련될 수 있다. 가족생활 문제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노부모부양 등에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 필요성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 필요정도를 높게 인식한 것은 농촌지역의 고용 및 가족 경제적 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 필요정도에 미치는 건강문제 요인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강문제 심각도는 다른 욕구요인의 효과와 달리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 필요정도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건강문제의 심각도를 덜 느끼는 사람일수록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의 필요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 보다는 당장에 건강과 관련된 의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기 때문에 취업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지 사료된다.

둘째,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정도의 경우 소인요인 중 교육수준, 욕구요인 중 주거문제 심각도와 가족문제 심각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요인 중에서는 지역의 복지여건에 대한 심각정도가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문제와 가족문제, 원주시 복지여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은 주거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밝혀졌다.

셋째, 보건복지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해 소인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 지역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욕구요인 중에서는 건강문제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요인 중에서는 원주시 지역복지 환경에 대한 심각정도 및 거주지역 등 두 가지 모두 보건복지서비스 필요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원주시 지역요인, 즉 지역복지 환경의 심각도 인식과 거주지역 등이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결과는 지역사회가 갖추는 복지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즉, 보건복지서비스 필요성은 개인적 특성보다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얼마나 충분한 복지환경이 갖추어졌는지가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가족복지서비스 필요정도의 경우 소인요인과 욕구요인, 지역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요인 중에서는 성별과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 응답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가족복지서비스의 필요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가족복지서비스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한 것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가족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복지욕구가 더 크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욕구요인 중에서는 가족문제의 심각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클수록 가족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았다. 지역요인 중에서 원주시 복지여건의 문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가족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았다.

다섯째, 원주시 복지환경서비스 필요정도 즉, 복지 및 생활시설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가능성 요인 중 월소득과 지역요인 중 복지여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고, 원주의 교육, 문화, 보건 등 복지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원주시의 복지자원과 생활시설 인프라의 보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리하면, 건강, 일상생활 어려움 등 개인의 욕구 요인이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정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유진·강효진 2005; 박경숙 2003; 송다영 2003; 윤현숙 2001)와 마찬가지로, 지역복지욕구를 표출하고 지역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서비스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상생활 어려움, 즉 욕구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 필요도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취업·소득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주거복지서비스 필요도의 경우 주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의 경우 건강문제가, 가족복지서비스 욕구의 경우 가족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생활환경 및 복지여건 등 지역사회의 객관적 자원 현황을 반영하는 '복지여건문제' 역시 복지서비스 필요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복지여건 요인은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영역에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지역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표출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성향 및 특성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갖추고 있는 환경적 특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한편, 도·농 간 나타나는 지역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농 통합도시인 원주시의 특성상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에 있어서도 지역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 및 소득영역과 보건서비스 영역에서 농촌 거주자들의 서비스 필요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복지환경이 낙후되었으며 특히 경제적 생활과 건강 및 의료생활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농촌지역의 사회복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needs for welfare services

	Employment & Income	Residence	Health	Family	Community facilities
	β	β	β	β	β
Predisposing factors					
Sex	-.088	-.057	.055	.195**	.012
Age	-.057	-.003	.071	.018	.050
Education	-.006	.143*	-.009	.171**	.103
Enabling factors					
Number of family members	.112	-.015	-.080	-.050	-.034
Income	-.007	-.008	.069	-.046	.130*
Need factors(difficulties)					
Employment & Income	.419***	.099	-.085	-.032	.017
Residence	.098	.323***	-.131	-.050	-.023
Health	-.132*	.047	.223**	.056	-.053
Family relationship	.208**	.124*	-.106	.476***	-.100
Environment factors					
Community welfare status	.067	.157*	.483***	.279***	.437***
Region(Urban/Rural)	-.169**	-.106	-.144**	-.057	-.091
Adjusted R^2	.331	.286	.288	.361	.198
F	11.049***	9.119***	9.199***	12.468***	5.998***

***p<.001 **p<.01 *p<.05

지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개선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V. 맺는말

이 연구의 목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기혼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밝히는데 있다. 특히 지역복지의 영역을 취업 및 소득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복지환경 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지역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과 지역환경 특성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취업 및 소득 등 경제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컸다. 또한 가계의 경제적 지출은 주거, 건강, 가족생활 등 다른 일상생활 영역에까지 비용의 문제와 연결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원주시가 제공하는 물리적, 문화적, 교육, 보건의료적 복지환경의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을 높게 표출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지역 내 문화적 환경의 부재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주시는 거주환경과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및 문화 · 여가 환경의 쾌적한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다섯 가지 지역복지서비스 영역들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들에 대한 필요 정도가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대상자들의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겠다. 특히 이 중에서 조사대상자들이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복지서비스 영역은 보건복지서비스 영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주시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의 강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두 번째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복지서비스 영역 등 문화시설·공원·복지기관 등 문화 및 여가복지에 대한 서비스로 나타났다. 앞의 결과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시 지역주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여가 · 문화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공급해야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각 다섯 가지 영역의 복지서비스 영역별로 조사대상자들의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 및 소득지원서비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건강문제를 덜 겪을수록, 그리고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으며,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취업 및 소득지원 서비스 필요정도가 높았다. 주거복지서비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관련 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가족관계 어려움이 많을수록 서비스 욕구가 높았으며, 근접환경의 문화, 교육 등 복지여건의 문제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주거복지서비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서비스의 경우 본인과 가족의 건강상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서비스 필요정도가 높게 표출되었으며, 지역적 요인으로 지역 환경의 복지여건 문제를 많이 인식할수록, 그리고 농촌거주자가 보건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이 표출되었다. 가족복지서비스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 응답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필요성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지역 환경의 복지여건를 문제를 많이 인식할수록 가족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복지환경제공 욕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지역 환경의 복지여건 문제를 많이 인식할수록 복지서비스 필요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각 복지서비스영역 별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필요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들은 각 서비스 영역별로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얼마나 어려움을 인식하는가의 여부였다.

또한 지역 사회가 문화, 교육, 보건 등 지역 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복지여건문제' 요인 역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하위영역들에서 일관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복지욕구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수요의 측면, 즉 구성원 개인적인 특성 변수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갖추고 있는 객관적인 복지 자원 및 시설, 거주의 편리성 등의 복지공급요인 역시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 사회가 기본적인 생활, 문화시설 및 복지자원 등을 적절하게 마련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책임이 막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촌거주자들이 취업 및 소득지원 서비스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영역에서 서비스 필요정도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영역에서 도 · 농간의 지역격차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필요정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해석할 때 마찬가지로 주목할 것은 가족생활 요인의 효과이다. 가족생활 및 가족복지서비스 영역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정도 및 욕구 정도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섯 가지 복지서비스 영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비단 가족복지영역 뿐 아니라 기타 복지서비스 욕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취업 및 소득문제, 주거문제, 건강문제 등은 이러한 일상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지영역인 소득지원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등에만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가족문제'는 가족복지영역 뿐 아니라 취업 및 소득복지, 주거복지 영역 등 여러 복지영역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다양한 영역의 복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가족의 안녕이 전체 삶의 질의 증진에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고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의 지역복지 필요도 및 관련요인을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원주시 지역복지의 향후 방향성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시의 경우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생활편의시설 등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갖추는 일이 지역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위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인식하고 지역 환경 내에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주시에서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지 거의 1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셋째, 제한된 예산과 자원 안에서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지역사회는 가능한 지역적 여건에서 최선의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욕구조사는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기획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욕구조사를 좀 더 세분화 하여 꾸준히 수행해 가면서 지역나름의 복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지역복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지역 내 복지의식을 고양하여 주민들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역복지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그 지역에 적합한 복지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예산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현실이다. 지역복지욕구 조사란 특정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독특한 복지욕구의 경향성을 드러내어 그 지역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

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지역복지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강세현(1999) 제주도민의 복지욕구와 사회문제인식. 제주도연구 16, 1-26.

강유진 · 강효진(2005)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8, 255-294.

고정자 · 최은주(2001) 재가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실태 및 요구도. 생활과학연구논문집 9, 51-90.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순양(1997)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행정체계 구축방안. 한국사회복지학 31, 191-218.

김은정 · 진미정(2004) 빈곤 여성가장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및 관련요인 고찰. 가족과 문화 16(3), 43-71.

김정기 · 백종만 · 김찬우(200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21.

김정순 외(2003) 치매노인의 부양실태와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3), 385-396.

김주원(1998) 도 · 농 복합 원주시 관내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 강원개발연구원.

박경숙(2001) 농촌과 도시재가생활보호노인의 욕구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비교. 사회보장연구 17(1), 175-211.

박경숙(2001) 농촌과 도시 재가 생활보호노인의 욕구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요실태 비교: 경기도 재가생활보호노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6(1), 175-211.

박경숙(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5, 283-307.

박광덕(2002) 뉴거버넌스 시대의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정책 16, 59-80.

변화순 · 송다영 · 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0.

서인해 · 공계순(2004) 욕구조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남출판.

송다영(2003)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3, 105-128.

신원식 · 임성옥(2002) 대구지역의 복지욕구 및 삶의 질 평가. 복지행정논집 12(1), 131-165.

윤현숙(2001) 노인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141-161.

원주시(2004) 원주시 통계연보.

이병렬(1998)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지역복지정책 12, 85-103.

이인재(1997) 수원지역 사회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신논문집 특별호 5, 59-604.

이인희(2004) 지역사회복지의 인식체계 연구, 지역연구 20(3), 37-59.

이재모 · 이신영(2006).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203-222.

이정화 · 송미영(2004)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노인생활지도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3), 149-165.

이창희 · 강영실(2006)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왕사. 43-47.

이현송(1999) 실직자가족의 복지욕구와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 9, 155-176.

조흥식 외(2002)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채정숙 · 조희금 · 박충선 · 정영숙(1996)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대책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4(5), 13-27.

최원규(1997) 도시 빈곤여성의 삶과 복지정책의 방향. 지방자치연구 5, 69-99.

한현수(2004) 도시지역주민의 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9, 433-464.

Calsyn RJ · Winter JP(1999) Predicting specific service awareness dimensions. Research on Aging 21(6), 762-779.